

016년 12월 7일 [제13강]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1. 수신자: 베드로전서와 같은 사람들로 생각이 됩니다.
2. 저작 시기: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후 2-3년 후에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3. 저작 목적

교회의 내부로 침투할 거짓 교사들로 인한 위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1장 13~14절, 2장 1절). 교사들은 주로 영지주의자들로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들을 유혹하여 방탕하게 살도록 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경건한 성도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질책하고 성경의 확실함을 증명하며 성도들이 바른 진리안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하여 두 번째 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신자는 베드로전서와 같은 사람들로 생각이 되며

[생각해 볼 문제]

1.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1)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

(2)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3) 언제,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

2.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1서]

1. 저작: 저작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이 저작으로 여겨집니다. 이 서신서와 요한복음은 어휘나 표현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진리와 거짓을 뚜렷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2. 수신자: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 활동했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회람 서신으로 추측됩니다.

3. 기록 연대와 장소: 초대 교회 교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AD 85-9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되며 기록 장소도 에베소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4. 저작 목적: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이후 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 전역으로 흩어진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1세기 말부터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며 거짓 가르침을 퍼뜨립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고 성도들을 바른 믿음에 굳게 서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깨우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

1. 이 서신서에는 “... 했다고 하면서 ...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합니다. 그 당시의 잘못된 교훈들을 반박하는 설명들입니다. 어떤 가르침이 잘못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2.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과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3.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한2서]

1. 저자: (1절)에 자신을 “장로”로 밝히고 있는데 요한복음이나 요한1서와 유사한 말씀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사도 요한이 저자로 여겨집니다.

2. 수신자: (1절)에 수신자를 믿음의 자매라고 명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특정한 부인이 수신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분들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자매는 헬라어로 “퀴리아”인데 주인을 뜻하는 “퀴리오스”의 여성형 단어이고 초대교회 당시 교회라는 말 대신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리기 때문이지요. 또 “자매”를 교회로 해석을 해야 (13절)의 해석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3. 기록 연대와 장소: 요한1서와 같은 시기, 혹은 그보다 조금 늦게 쓰여진 것으로 생각되며 요한1서와 같이 에베소에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4. 저작 목적: 초대교회 시기에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여행을 돕는 경비를 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도 그들처럼 돌아다니며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잘 모르는 가운데 이방사상의 전파에 협조하는 일이 없도록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자 본 서신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

1.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적대자이므로 경계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3서]

1. 저자: 요한2서와 같이 (1절)에 “장로”라고 스스로를 지칭하고 있으며 다른 서신서와의 유사성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도 요한이 저자로 생각됩니다.

2. 수신자: (1절)에 “가이오”가 수신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기는 충성스러운 성도였습니다. 신약성경에는 가이오가 4명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9:29)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 (사도행전 20장 4절) 더베사람 가이오, (로마서 16장 23절) 고린도 교회를 돌보던 가이오, (고린도전서 1:14) 바울이 침례를 준 가이오. 그 당시 “가이오”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어서 수신자가 어떤 가이오인지 불분명합니다.

3. 기록 연대와 장소: 요한1,2서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썼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4. 저작 목적: 데메드리오에 의해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요한 삼서는 순회 전도자들의 보고를 통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베퓌 대접에 대해서 칭찬하는 서신서입니다. 반면에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었던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의 권위에 도전하고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을 거

부하였습니다. 심지어 디오드레베는 그들을 받아들여려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추방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디오드레베를 책망하기 위해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

3.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어떤 점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서]

1. **저자:** (1절)에 저자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모두 7명의 유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한명 뿐이며 (마태복음 13장 55절, 마가복음 6장 3절)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같이 유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다음에 신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 **수신자:** (1절)에 수신자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일반적인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3. **기록 연대와 장소:** 본 서신을 기록한 연대와 장소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17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 사도 시대나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유다서의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과 비슷하므로 서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럴 경우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저작 목적:** (4절)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교회에 “몰래 숨어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본 서신서에서 특별히 경고하는 거짓 가르침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자유방임적인 생활을 정당화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들을 대적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3절).

[생각해 볼 문제]

1.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